

# 만남

2019년 7월  
통권 174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                           |                       |    |
|---------------------------|-----------------------|----|
| 신부님 칼럼                    | + 그럼에도 불구하고-----      | 3  |
| 소공동체 모임 자료                |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 4  |
| 교리                        | 사회교리의 이해-----         | 8  |
| 기도 소개                     | 나는 소망합니다-----         | 11 |
| 영적 상담                     | -----                 | 12 |
| 나눔                        | -----                 | 14 |
| 공동체 소식                    | -----                 | 16 |
| 지방 공동체 소식                 | -----                 | 20 |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                 | 21 |
|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                 | 22 |
|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br>월보 만남지 안내 | -----                 | 23 |
| 미사안내                      | -----                 | 24 |

## 《교황님의 7월 기도지향》

### ❖ 보편 지향 : 온전한 정의

법을 집행하는 모든 이가 공정하게 일하여 이 세상에 더 이상 불의가 만연하지 못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호황기를 누렸던 유럽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신자수의 격감으로 교회들은 무용지물이 되어 텅 빈 교회 건물의 매매가 활발합니다. 매각된 교회는 휘트니스 센터나 스케이트보드 연습장, 상가나 술집 등의 용도로 탈바꿈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도 어쩌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현 상황을 바라보면 무척이나 비관적입니다. 본당에서 중고생들이나 청년들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교회 공동체와는 너무나 비교·대조되어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는 발길 닿는 곳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를 계속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에 머물고 계실 무렵,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 인명피해가 우려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한 가지 비상대책 안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밀려드는 군중들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기 위해 거룻배 한척을 구해 그 위에 오르신 것입니다. 배 위에서 안전하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게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평생소원’을 이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오랜 갈증을 원 없이 채웠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대우 받지 않았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특별대우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치유면 치유, 구마면 구마, 설교면 설교, 그토록 고대하던 하느님 나라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와 너무나 비교되는 오늘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점점 활력과 회복탄력성을 잃어가는 교회를 바라봅니다. 더 이상 수직으로 곤두박질치지 않기 위한 묘안이 무엇인가 고민해봅니다.

프랑스 교회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떼제 공동체 언덕은 전 세계로부터 몰려온 수많은 청년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루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세속화된 세상 한 가운데 가장 거룩한 성모님 성지가 자리 잡아 신앙의 빛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신앙, 생기 있는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 역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신앙생활이 따사로운 여름에도 청량함을 더해주길 기도합니다.

##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루카 10,25-37)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1장 “이 크신 모든 은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0 25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 2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 27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 28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 29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 10 30 예수님께서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 31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 32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 33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 34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를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 35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36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 37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질문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 한결을 더 나아가기

예수님의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 언급하기 어색한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10,37ㄱ)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철천지의 원수였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자 그곳에 거주하던 사마리아인들은 남유다 왕국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기가 힘들었기에 예배 장소를 그리짐산에 따로 내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성소를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세우고 예배한다고 하여 사마리아인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며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보다도 더 미워하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이런 관계이기에 율법 교사는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원수인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기가 어색해서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현명한 대답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꼭 사마리아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율법 학자의 이 대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에는 이웃의 한계가 없습니다. 종교와 인종의 차이 같은 것으로 인해서 나와 너, 우리와 너희를 갈라놓아서 안 됩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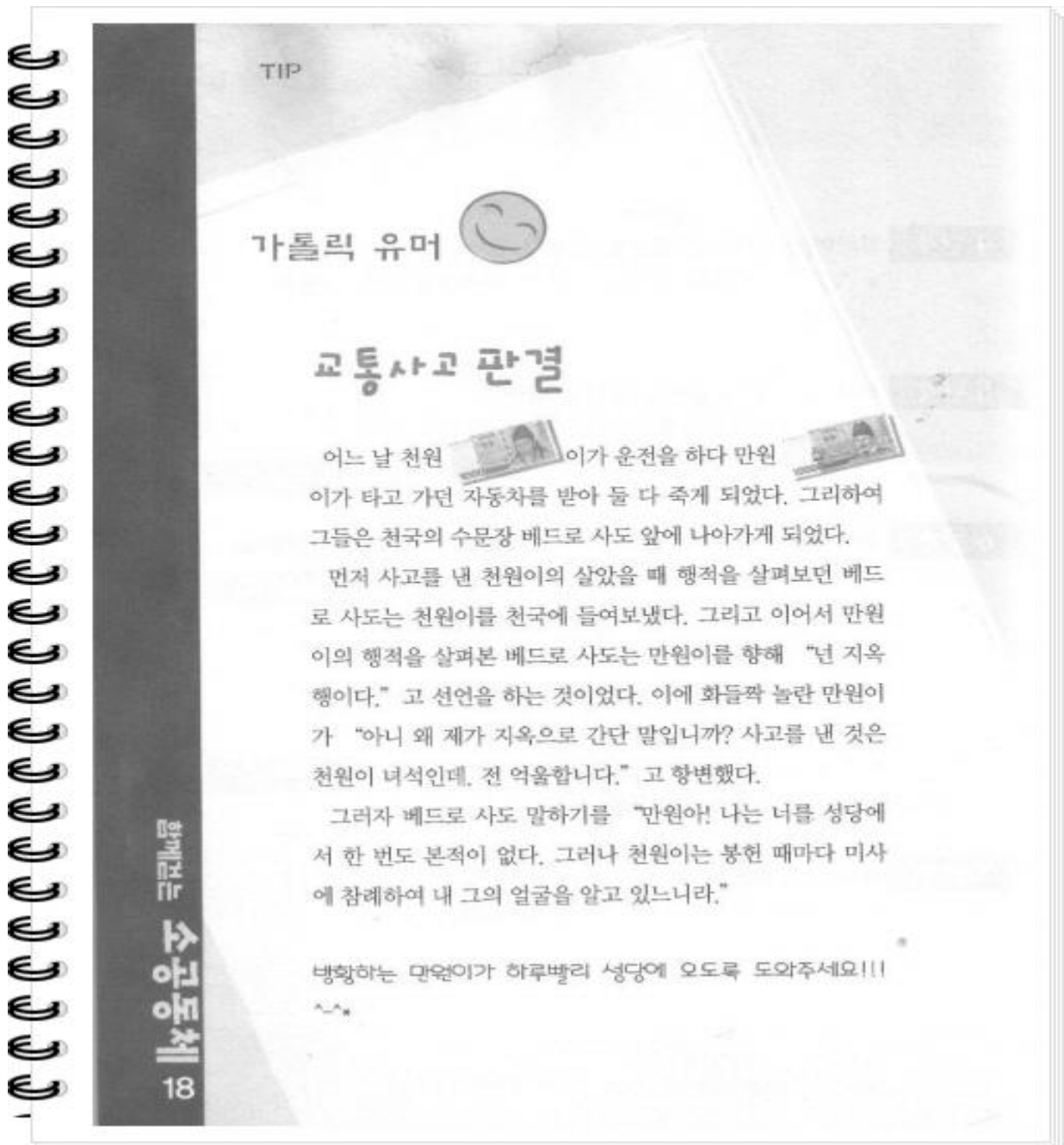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1장 “이 크신 모든 은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19. 교황님의 사회교리서 <두캣>

아이가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엄마들은 사색이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될까봐서요. 그런데 아이가 고등학생쯤만 되면 어떻습니까? 거짓말할 줄 모르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녀를 두고 부모님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저리 착해 빠져서 어찌나!’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른바 ‘정치력’을 발휘할 줄 모르는, ‘인사도 할 줄 모르고’ 원칙을 고집하는 사람은 골칫거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홀로 깨끗하면 인생이 괴롭다는 경험칙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터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살아남는 법을 배웁니다. 수많은 경쟁자와 적들을 상대하자면 신뢰보다는 의심을 먼저 익혀야 합니다. 세상은 착하게 살래야 살 수 없는 전쟁터라고들 합니다.

이 무서운 세상에서 신자다운 삶을 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사회 정의라든지 평화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물정 모르는’ 철부지들의 몫이 되고 맙니다. 예로부터 그랬습니다. 2세기 무렵 로마의 평론가 루치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들에게 최초로 계명을 준 사람(예수 그리스도)은 그들이 모두 같은 형제자매라고 하면서 자신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것을 경멸하고 모든 것을 공동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돌팔이나 사기꾼도 만일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지 이 어리석고 순진한 이들을 협박해서 재산을 등쳐먹을 수 있을 것이다.”(Lucianus, De Morte Peregrini, 13)

그런 의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펴내신 사회교리서 <두캣>의 첫 장 제목이 “하느님의 계획 - 사랑”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교리서는 “인간이 사랑을 만나지 못할 때, 사랑을 체험하고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할 때 ... 인간은 자기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남게 되며 그의 생은 무의미하다.”고 밝힙니다. 이어 “사랑은 교회의 사회교리의 핵심입니다. ... 사랑은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하느님의 약속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라는 구절은 사회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여정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세상을 전쟁터가 아니라 하느님의, 하느님 사랑의 위대한 작품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새 하늘 새 땅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느님의 계명을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사회교리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다.



## 20. 함께 할 때 우리는 강하다

시속 70Km로 맹렬하게 쫓아오는 굶주린 야생 곰을 피하려면 얼마나 빨리 달려야 할까요? 누군가의 답은 이렇습니다. “옆 사람보다 빨리 뛰면 된다.” 엄청난 힘과 속도, 높은 지능과 인내심에 나무도 잘 타고 수영도 잘하는 곰을 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나보다 느린 옆 사람이 곰에게 먹히는 동안 홀로 줄행랑을 치는 게 더 현실적이겠지요. 이것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급격한 사회 변화 앞에서 많은 이들이 택한 길이기도 합니다. ‘너는 죽더라도 나만은 살아야겠다!’는 속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옆 사람을 다 먹어치운 곰이 언젠가는 나를 노리게 될 뿐 아니라, 곰이 꼭 끝자리에 처진 사람만 먹이로 삼지는 않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 속에 뒤쳐질까 노심초사하는 우리도 앞선 자리를 잠시 차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만, 내 가족만이라도 앞서 나가길 바라는 것보다는 거센 변화의 격랑을 함께 이겨가는 것이 참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쫓아오는 곰에게 옆 사람을 먹이로 던져주는 것보다는 여럿이 곰과 맞서거나 곰을 길들일 방법을 찾는 편이 더 나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두ckett> 제2장이 설명하는 것처럼, 교회의 사회교리는 인간을 파괴하는 경제라는 괴물 앞에서 함께 사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교회는 모든 인간이 하느님과 이루는 일치 그리고 모든 인간이 서로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교회 헌장」 1항 참조)이기 때문에, 주님의 모범에 따라 이 시대의 무기력한 이, 희생된 이, 가난한 이들과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연대는 비단 가톨릭 신앙인뿐만 아니라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두ckett> 35항).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창세 2,18)고 하신 하느님 말씀을 따르려는 교회의 가르침이 사회교리인 것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예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업구조가 바뀐다는 것은, 곧 지금까지 있던 일자리들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과 가축의 노동력을 증기기관이 대신하게 된 1차 산업혁명부터 여태까지 나타난 일관된 현상은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될지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굶주린 곰처럼 무서운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때 우리는 강하다.”는 <두ckett> 제2장의 제목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 21. 유일하고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인격

서기 1세기경의 내과 의사 첼수스는 이집트 범죄자들을 상대로 했던 인체실험을 정당화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수의 범죄자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세세대대로 선량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잔인하다고만 볼 수 없다.”

소수의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면 괜찮은 것이 아니냐는 논리는 첼수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악행을 정당화하는 논리였습니다. 의학의 영역 밖에서도 소수를 희생해서 대의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언제나 있었는데, 그 ‘희생당해야 할 소수’는 숫자와 관계없이 언제나 약자의 몫이었지요.

약자이기 때문에 희생을 강요당하던 사람들은 실로 다양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그러했고, 유색인종은 이른바 선진국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삶을 강요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1억 6천만이 넘는 어린이들이 커피농장, 코코아 농장에서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돈에 노동을 착취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하고 힘든 일들은 외주업체를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이 되어 버렸지요. 농민들은 어떻습니까. 일 년 벼농사를 지어봐야 한 가마니에 15만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당한 일들은 ‘전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됩니다.

가톨릭 사회교리서 <두캣(Docet)>의 제3장은 ‘유일하고 무한한 가치’라는 제목을 달고 인간의 인격이 지닌 존엄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유일무이한 존재, 다른 무엇을 위해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까닭은 “하느님이 유일한 인격으로 원하셨던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더 큰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54항)입니다. 하느님께서 그토록 사랑해서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고 버릴 수단으로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다른 재능을 지녔거나 남다른 노력을 해온 사람들이 그만한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비범하지 못하다고 해서 쓰고 버릴 소모품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 나는 소망합니다(헨리 나웬)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를 대하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타인의 죽음을 볼 때마다 내가 작아질 수 있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베푸는 사랑의 기준이  
 내가 그에게 베푸는 사랑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모두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기를.  
 그러나 나 자신만은 그렇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언제나 남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기를.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나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없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삶이 언제나 나의 목표가 되기를.  
 그러나 사랑이 내 우상이 되지는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기를.



## 질문

일을 하다보면 자주 짜증이 나곤 합니다. 제 몸이 약한 탓인지 그리 오래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 저 자신이 너무나 짜증나고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것에 대해 심하게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이런 저를 보고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제가 몸이 약한데도 그렇게 살면 어른이 돼서 굶어 죽기 십상이라고 하시면서 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해서 저는 늘 골골하면서도 일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돼서 몸이 시원찮은데도 제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살다간 굶어 죽어.’ 하는 소리가 들려서 늘 힘들게 일하고 병들고 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 소장)

자매님의 인생이 참으로 고달프군요. 지금처럼 사시다간 제 명대로 살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짜증을 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세상사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짜증을 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매님 경우는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님은 심하게 지친 상태에서 감정적 불편함이 올라온 경우입니다. 사람은 몸이나 마음이 지치면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휴식을 주지 않으면 사람이건 동물이건 짜증을 내기 마련이지요.

이집트의 낙타들은 손님들을 태우고 피라미드 주위를 도는 것으로 돈을 벌니다. 그런데 관광객 중에서 그냥 낙타를 타고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을 때 낙타는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마치 군대에서 훈련병들이 열차려를 받듯이.... 그렇게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낙타의 얼굴은 짜증이 가득하고 입에서 불평하는 듯 구시렁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지쳐서 쉬어야 하는데 돈독이 오른 주인이 같은 동작을 지치도록 시키니 낙타가 짜증 낼 만도 한 것입니다. 자매님은 바로 이런 낙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매님은 자신을 그만 채찍질하시고 자신을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언해도 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초자아’의 잔인한 도덕성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 안에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초자

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초자아는 사람이 충동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는 미숙한 행동에 제동을 거는 마음 안의 경찰입니다. 그런데 이 초자아가 지나치게 굴 경우 사람들은 마치 폭군에게 시달리는 백성과 같이 지치도록 일하고 또 일해야 하는 노예살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폭군 같은 비대 초자아를 어떻게 하기 어려운 것은 이것들이 마치 자신들이 하느님의 말씀인 양 행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한 도덕적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하도록 채근하기 때문에 그런 초자아를 자신의 양심으로 착각한 사람들은 쉬는 것은 죄짓는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해 지친 낙타처럼 짜증을 내면서도 일하고 또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기도하는 마음은 점점 더 무겁고 지겨워지고 하느님이 사랑스런 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무섭고 폭압적인 하느님, 나를 노예처럼 착취하는 하느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왕이 폭군일 때 백성들은 들고일어나서 폭군을 몰아내온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렇듯이 내 안의 폭군도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내 안의 소리가 아무리 하느님의 소리, 마치 부모님의 말씀처럼 들릴지라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는커녕 나를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한다면 그것은 내 안의 폭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잘 식별해 제거하시고 정말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아껴주는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니니 많이 힘드신 경우 전문상담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그리스도인의 유머 ❖

## ❖ 시편 23편 경상도 버전

주님은 내 목잔기라, 그라이 내사 마 답답할 게 없데이, 저 시퍼런 풀 구덩이에 내사 마 자빠져 자고 셔언한 토랑가로 넬로 잡아 땡기신데이. 우짜던지 정신 차리고 올케 살아라 카심은 다 당신 체면 때문이시라 카네. 내 디질 뻔한 골짜 구디의 껌껌한 데서도 그 뻑이 참말로 여간 아닌 기라. 주님의 몽디이와 짹대기가 넬로 맨날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의 문디 자스들 앞에서 내 대가리에 지름 바르고, 넬로 팍팍 키와 주시니, 내사 뭇 걱정이 있겼노 말이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타 케싸도 저 양반이 맨날 지키줄 틈께로, 내사 마 우짜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 지기도 안 떠날 꺼데이.

## ◆ 소공동체 모임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나요?

함께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는 ‘나눔의 영성’과 그 신앙이 사랑의 나눔으로 드러나는 ‘봉사의 영성’이 소공동체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커다란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공동체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지요?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공동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아래의 활동들을 참고해서 실천해 보시면 더 활기 있는 소공동체 모임을 운영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개인 차원

성체조배, 매일 묵주의 기도 바치기, 구역 신자 이름(세례명) 외우기  
미사 시작 20분 전에 와서 묵상하기, 특정한 이웃을 위해 매일 주모경 바치기 등

### ◎ 공동체 차원

#### ㉠ 선교활동

- ㉡ 이웃에게 신앙 권면
- ㉢ 예비신자 돌보기(교리시간 동행, 대부모 서기, 교리 시간 중 예비신자 자녀 돌봄, 세례식 때 구성원이 참석하여 축하하기)
- ㉣ 유아세례 권면 및 대부모 서주기
- ㉤ 예비신자 가정 방문
- ㉥ 냉담자 파악 및 방문
- ㉦ 전입 신자 방문
- ㉧ 가두선교 참여하기

#### ㉨ 전례활동

- ㉡ 주일 전례 때에 독서 및 신자들의 기도, 성가 봉사
- ㉢ 전례시기에 따라 신앙에 도움을 주는 장식물 만들기(대림초, 성탄트리, 부활계란 등)
- ㉣ 반 별 십자가의 길, 피정, 성지순례 혹은 성가 배우기
- ㉤ 공동으로 성경 읽기
- ㉥ 원하는 가정에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기
- ㉦ 봉성체가 있을 경우 함께 참여하기

### ㉟ 봉사활동

- ㉿ 구역 내 환자 방문 및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와주기
- ㊀ 병원에 입원한 신자 및 예비신자 방문
- ㊁ 구역 내 독거노인 및 새싹가정을 방문하여 노력 봉사하기
- ㊂ 연도 및 상가(喪家) 돕기
- ㊃ 혼인 및 회갑 및 기타 노력 봉사가 필요한 가정에 가서 봉사하기
- ㊄ 장애인 가정 돕기 및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봉사자로 참여하기
- ㊅ 본당 청소에 참여하기
- ㊆ 재소자 방문하기
- ㊇ 복지 시설, 단체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봉사자 활동하기

### ㊸ 친교활동

- ㊿ 반 모임 시 친교를 위한 놀이(웃놀이, 간단한 다과회 등)
- ㋀ 선교 가능한 이웃을 초대하여 함께 차 마시기
- ㋁ 신앙과 관련되는 음악회, 미술전시회, 박물관, 기타 기관 함께 방문하기
- ㋂ 본당의 친교 행사에 참여하기(성가경연대회, 성극 대회, 부활그림 그리기 대회, 본당 체육대회 등)

### ㊹ 교육활동

- ㋃ 주일학교 교육 협조하기
- ㋄ 성경공부하기
- ㋅ 신자 재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예비신자 교리공부 도와주기

### ㊺ 대사회적 활동

- ㋆ 동네 골목 청소하기
- ㋇ 환경보호에 앞장서기(물 아껴 쓰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쓰레기 분리 철저하게 하기, 재활용품 사용하기)
- ㋈ 사회 도덕성 회복을 위한 운동에 참여하기(공공장소 깨끗이 사용하기, 공공 물건 아껴 쓰기)
- ㋉ 올바른 문화 정착하기 (사치품 안 쓰기, 과도한 혼수품 안 하기, 폭력, 선정 영상물 모니터링 하여 항의하기, 지역 내 교육환경에 대하여 관심 갖기)
- ㊀ 생명을 살리는 모든 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서명운동에 참여하기
- ㊁ 농촌지역 신자들과 연결하여 무공해 농산물 구매하기

❖ 7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                   |     |       |                   |
|-----|---------|-------------------|-----|-------|-------------------|
| 1일  | 에스텔     | 우영주<br>강새벽        | 25일 | 크리스토퍼 | 김영기<br>Rabe       |
| 3일  | 토마스     | 강신행<br>이정수<br>홍종각 |     | 야고보   | 김형웅               |
| 12일 | 베로니카    | 김매자<br>육종인<br>박성아 | 26일 | 안나    | 김순임<br>심은희<br>최경숙 |
| 20일 | 엘리야 예언자 | 이동운               |     | 아나벨   | 한선지<br>정정숙        |
| 21일 | 다니엘     | 심동근<br>김무송<br>김선일 | 28일 | 빅토르   | 허두욱               |
| 22일 | 막달레나    | 김원자               | 29일 | 마르타   | 김정숙               |
| 24일 | 크리스티나   | 이정옥<br>문귀옥        |     |       |                   |

❖ 7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        |     |      |                                      |
|-----|----------|--------|-----|------|--------------------------------------|
|     |          |        | 25일 | 발렌티나 | 임선희(O)                               |
| 3일  | 토마스      | 탁준성(H) | 26일 | 안나   | 강지우(H)<br>곽유정(H)<br>정애령(H)<br>탁화자(H) |
| 22일 | 마리아 막달레나 | 김혜림(B) | 31일 | 이나시오 | 목진만(H)                               |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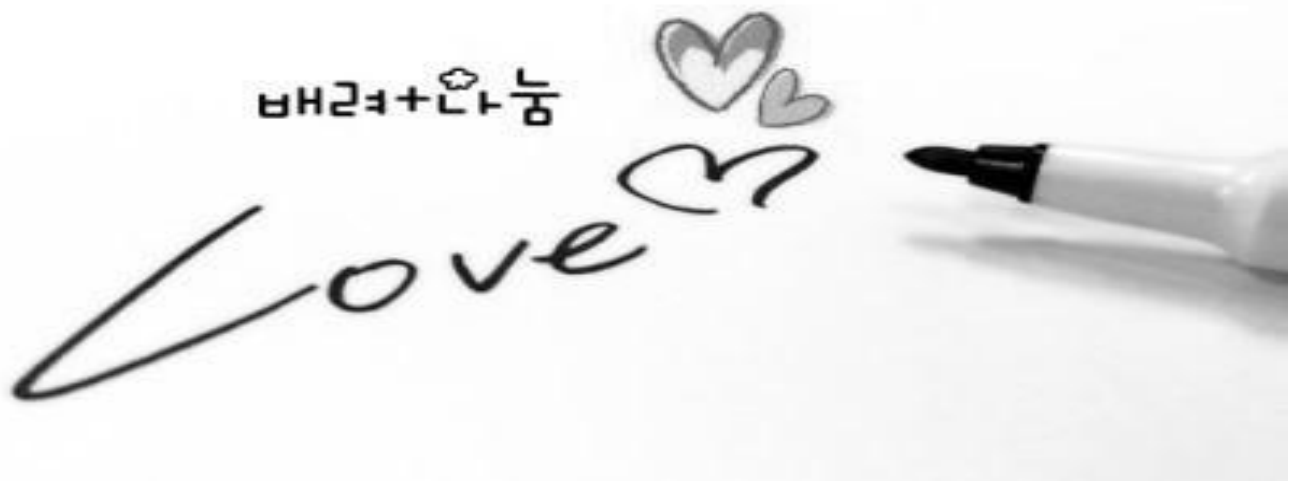


## ❖ 7월 성가번호 ❖

| 7월  | 입 당     | 봉 헌 | 성 체 | 파 견 |
|-----|---------|-----|-----|-----|
| 7일  | 16      | 215 | 504 | 426 |
| 14일 | 25      | 217 | 498 | 402 |
| 21일 | 2       | 220 | 188 | 439 |
| 28일 | 찬 양 미 사 |     |     |     |

## ❖ 7월 미사 전례 봉사자 ❖

| 7월  | 독 서                     | 제 병 봉 헌                 | 복 사                     | 커피 봉사 |
|-----|-------------------------|-------------------------|-------------------------|-------|
| 7일  | 최화영(시몬)<br>최종금(로사)      | 이영원(베드로)<br>이정옥(크리스티나)  |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br>최장용(레오) | 1구역   |
| 14일 | 정명옥(살로메)<br>김매자(베로니카)   | 김치수(도미니코)<br>이영희(클라우디아) | 주일학교                    | 2구역   |
| 21일 | 청년회                     | 청년회                     | 청년회                     | 3구역   |
| 28일 | 허채열(크리스티안)<br>허영란(엘리사벳) | 배성우(도미니코)<br>심은희(안나)    | 주일학교                    | 4구역   |



❖ 우리들의 정성 ❖

| 주 일  | 5월 26일                                       | 5월 29일 | 6월 2일  | 6월 9일  | 6월 16일 | 6월 23일 |
|------|----------------------------------------------|--------|--------|--------|--------|--------|
| 주일헌금 | 196.92                                       | 218.30 | 203.33 | 415.20 | 275.84 | 205.65 |
| 헌납금  | 60                                           |        | 20     | 560    | 430    | 50     |
| 2차헌금 |                                              |        |        | 201.65 |        |        |
| 구작입금 | 5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510.00 * 헌납금 합계 1,630.00 |        |        |        |        |        |

❖ 자진헌납금 ❖

**2019년 5월 21일 - 2019년 6월 23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 현금납부 :

황영선, 우동천, 최장용, 이정수, 윤석순, 신옥희, 김효정,  
강신행, 이종하, 배성우, 김기연, 오옥수, 심동근, 이현목,  
최순남, 손수희, 문수진 Sebastian, 육종인, 현영애, 이정은,  
김경미, 김건, 김민옥, 서세원, 이수웅, 진윤희, 이공종,  
강순행, 방은일, 김경렬,

◆ 구작입금 :

김부남, 이중지, 김원자, 이석우, 송문규, 김정숙 Eilinghoff,  
최성자, 최현봉, 이성원, 박준병, 허두옥, 정정숙, 이정훈,  
이명원, 이상봉, 김치수, 허길조, 이영희 Eggerstedt, 김진호,  
김동수, 김유석, 김대현, 강일남, 김형웅, 이경규, 이영원,  
백정선, 홍경영, 최화영, 남궁춘배, 권지연 Rabe,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 Hamburg 공동체 소식

1. 7월에 휴가를 다녀오시는 분들은 잘 다녀오십시오. 재충전과 휴식의 참된 의미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2. 7월 2일 화요일 저녁미사 후에는 믿음의 샘 뿌리아가 있습니다.
3. 7월 7일 일요일 13시에는 예비신자 교리가 있고, 주일미사 후에는 사목 월례회가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4. 7월 10일 수요일 오전미사 후에는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모임이 있고, 7월 14일 일요일 주일미사 후에는 청년 소공동체 모임이 있으며, 7월 26일 금요일에는 4구역 소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5. 7월 25일 목요일에는 연령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6. 7월 27일 토요일 뿌리아에서 주관하는 레지오 야외행사가 Pflanzen un Blumen에서 있습니다. 레지오 단원들에게 즐거운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7. 7월 28일 일요일 연중 제17주일 주일미사는 찬양미사로 봉헌합니다.
8. 7월 넷째 주일부터 배구대회를 위한 연습이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각 구역에서는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한 주일 씩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날씨는 구역장님들끼리 의논해 주십시오.

※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2431
2. 6월 미사는 6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 Hedwig 성당에서 봉헌하였습니다.
3. 7월 미사는 7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 Hedwig 성당에서 봉헌합니다.

###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3. 6월 공동체 미사는 6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봉헌하였습니다.
4. 7월 공동체 미사는 7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봉헌합니다.

###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6월 오스나브뤼크 지방공동체 미사는 6월 8일(토)에 성령 강림 대축일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2. 7월 미사는 7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최한우(바오로), 김혜경(아네스) 가정에서 가정미사로 봉헌할 예정입니다.
3. 허규혁(프란치스코) 형제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축하드리며 밝은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                |                    |                      |       |            |            |
|----------------|--------------------|----------------------|-------|------------|------------|
| 사 록 협 의 회      |                    |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 만남성당  | 회장         | 한말조(마리안나)  |
|                |                    |                      |       | 부회장        | 배성우(도미니코)  |
|                |                    |                      |       | 부회장        | 권지연(안드레아)  |
|                |                    |                      |       | 전례부장       | 문경영(아가다)   |
| 주 일 학 교        |                    | 매월 셋째 일요일            | 만남성당  | 교감         | 최영자(파울라)   |
| 연 령 회          |                    | 매월 넷째 목요일<br>17시 30분 | 만남성당  | 회장         | 최영숙(데레사)   |
| 예 비 자 교 리      |                    |                      | 만남성당  | 복음화        | 회장 대리      |
| 레 지 오<br>마 리 애 | 민음의 샘 Cu           | 매월 첫째 화요일<br>저녁미사 후  | 만남성당  | 단장         | 허명자(가밀라)   |
|                | 자비의 모후 Pt.         | 매주 화요일<br>13시 30분    | 만남성당  | 단장         | 강순행(마르가리타) |
|                | 평화의 모후 Pt.         | 매주 수요일<br>오전미사 후     | 만남성당  | 단장         | 현영애(헬레나)   |
|                | 사랑의 모후 Pt.<br>(정년) | 매주 목요일<br>저녁미사 후     | 만남성당  | 단장         | 박성아(베로니카)  |
| 구 역            | 1구역                |                      | 구역장   | 김매자(베로니카)  |            |
|                |                    |                      | 총 무   | 신옥희(비아)    |            |
|                | 2구역                |                      | 구역장   | 이영희(체칠리아)  |            |
|                |                    |                      | 총 무   | 허영란(엘리사벳)  |            |
|                | 3구역                |                      | 구역장   | 김형웅(야고보)   |            |
|                |                    |                      | 총 무   | 이경구(안스카)   |            |
|                | 4구역                |                      | 구역장   | 육종인(베로니카)  |            |
|                |                    |                      | 총 무   |            |            |
| 청년회            |                    |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 회장    | 박준병(바오로)   |            |
|                |                    |                      | 부회장   | 강새벽(에스텔)   |            |
|                |                    |                      | 총무    | 한승종(스테파노)  |            |
| 요셉, 마리아회       |                    | 매월 둘째 수요일<br>평일미사 후  | 회 장   | 심은희(안나)    |            |
| 여성 봉사회         |                    |                      | 실무 책임 | 김매자(베로니카)  |            |
|                |                    |                      |       | 이정옥(크리스티나) |            |
|                |                    |                      |       | 허명자(가밀라)   |            |
|                |                    |                      |       | 심은희(안나)    |            |

## 7월 중 행사 예정표

| 일  | 요일 | 전례 일                               | 단체 행사        | 비고       |
|----|----|------------------------------------|--------------|----------|
| 1  | 월  | 연중 제13주간 월요일                       |              |          |
| 2  | 화  |                                    | 믿음의 샘 뿌리아    |          |
| 3  | 수  | 성 토마스 사도 축일                        |              |          |
| 4  | 목  |                                    |              |          |
| 5  | 금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기념일              |              |          |
| 6  | 토  |                                    |              |          |
| 7  | 일  | 연중 제14주일, 소서                       | 사목월례회        | 예비신자 교리  |
| 8  | 월  |                                    |              |          |
| 9  | 화  |                                    |              |          |
| 10 | 수  |                                    |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          |
| 11 | 목  | 성 베네딕토 아빠스 기념일                     |              |          |
| 12 | 금  | 초복                                 |              |          |
| 13 | 토  |                                    |              |          |
| 14 | 일  | 연중 제15주일                           | 청년회 소공동체     |          |
| 15 | 월  | 성 보나벤투라 주교 학자 기념일                  |              |          |
| 16 | 화  |                                    |              |          |
| 17 | 수  | 제헌절                                |              |          |
| 18 | 목  |                                    |              |          |
| 19 | 금  |                                    |              |          |
| 20 | 토  |                                    |              |          |
| 21 | 일  |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              |          |
| 22 | 월  |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 중복                 |              |          |
| 23 | 화  | 대서                                 |              |          |
| 24 | 수  |                                    |              |          |
| 25 | 목  | 성 야고보 사도 축일                        | 연령회 월례회      |          |
| 26 | 금  |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br>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 | 4구역 소공동체     |          |
| 27 | 토  |                                    |              | 뿌리아 야외행사 |
| 28 | 일  | 연중 제17주일                           | 찬양미사         |          |
| 29 | 월  | 성녀 마르타 기념일                         |              |          |
| 30 | 화  |                                    |              |          |
| 31 | 수  |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 사제 기념일                |              |          |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한 말 조 마 리 안 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 미 사 안 내 ❖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미사 10분 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넷째 금요일 16시 00분(4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 지방 공동체

####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